



독자 단상

허봉조

대구환경청 녹색홍보팀장 수필가

“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추억이 많다는 것은 기념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

”

14일 기념일을 아시나요. 세간에는 매월 14일에 이름붙인 재미있는 기념일도 있다. 1월은 연인끼리 서로 일기장을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2월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 3월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화이트데이, 4월은 솔로들끼리 자장면을 먹으며 위로하는 블랙데이, 5월은 서로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 . 오는 14일은 ‘키스데이’다. 연인들끼리 입맞춤을 나누는 날이라는 뜻이다. 연인들끼리 입맞춤이야 특정일에만 하겠는가. 야구장에서도 ‘키스타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 우리의 문화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방송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레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 중년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잔물결 같은 소름이 돋는 것이 사실이다.

기념일이 많은 만큼, ‘데이 마케팅 (Day-Market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월별 또는 계절별 이슈나 특정일을 전후하여, 주제에 어울리는 선물이나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싶다. 경우에 따라 지

나치게 소비를 부추긴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로인해 생활에 재미와 흥미를 가져다준다면 굳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추억이 많다는 것은 기념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 추억은 생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다준다. 또한 추억은 상상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사랑과 희망의 전령사이며, 희망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안겨주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난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이라고 할 만큼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다. 덕분에 자녀에게, 부모님께, 스승님께, 배우자에게 그 동안 무심하거나 소홀했던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가 되었음이 다행이었다. 기관이나단체, 기업 등에도 기념할 일이 많을 것이다. 창립기념, 수출목표 달성을 기념, 무재해 기념, 신제품 출시한 기념… .

개인적으로도 결혼이나 출산, 입학과 졸업, 합격과 승진 등 기념할 일은 셀 수 없이 많다. 운전면허를 땄던 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걷기나 미라톤 대회 첫 참가의 멀림,

경쟁을 이겨낸 열정, 소나무 한 그루를 심은 보람, 처음 해외연수를 떠났던 날의 설렘 등 스스로 쟁기는 기념일 또한 오래 기억할 수록 건조한 삶에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14일 기념일로 돌아가 보자. 7월은 연인끼리 서로 은반지를 선물하는 실버데이, 8월은 삼십육하며 무더위를 달래는 그린데이, 9월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포토데이, 10월은 포도주를 마시는 와인데이, 11월은 함께 영화를 보는 무비데이, 12월은 서로 껴안아주는 허그데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가족 또는 친지의 기념일을 쟁기는 것이 아말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비록 기념일을 일일이 쟁기지 못하고 잊은 채로 지나친다 해도, 해가 바뀌면 그날은 또 다시 우리들 가슴에 추억으로 찾아올 기념일을 많이 갖고 싶다.

태양이 눈부신 6월. 연인이 되기를 꿈꾸는 아직은 서먹한 청춘 남녀에게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한 연인에게, ‘키스데이’의 달콤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 는 기분 좋은 예감이 앞선다.

기념일 예찬